

서구청장 후보에 듣는다

김선옥 후보 (민주·52)

서대석 후보 (국민참여·49)

박금자 후보 (무소속·55)

김종식 후보 (무소속·62)

“시민참여자치 생활행정”



▲주요경력
-광주시의원
-노무현 대통령후보 여성특보
▲재산= 5억5851만원
▲납세= 1582만원
▲병역= 해당 없음
▲전과= 없음

▲서구의 당면 현안 문제와 향후 서구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재정 건전성 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신도심과 구도심의 균형발전의 문제, 상무소각장 이전문제, 마복동 탄약고 이전문제, 광주공항 소음피해, 상무지구 유흥가 문제 등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민과의 소통 단절과 공직사회의 투명성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강점과 단점은.
-시민단체부터 의회까지 사회 곳곳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앞장서 서구의 현실을 속속들이 알고 있으며, 대안까지 갖추고 있다. 단점이라면 여성이라는 점이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가 많이 존재하며, 정치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후보가 제시하는 서구의 비전은 무엇인가? 10년 후의 서구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서구의 비전은 세 가지이다. 첫째 시민참여자치 생활행정을 통해 참다운 지방자치 모델을 만들겠다. 둘째, 서구를 세계보건기구(WHO) 공인 '안진도시' 추진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명품도시 서구를 만들겠다. 셋째, 친환경 녹색 전락을 기반으로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잘 사는 미래형 녹색 모범도시 서구를 만들겠다. 한마디로 서구를 바꾸는 생활 행정으로 행복을 여는 행복 자치, 서구를 열어갈 것이다.

▲4개월 전 이미 서구민에 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한 견해는.
-우선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가 아닌 재선거이다. 지난번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치러진 민주당 서구청장 후보 경선에서도 상대후보가 여성가산점을 문제 삼았지만, 결국 여성가산점 없이도 민주당원과 서구민의 높은 지지를 받으며 민주당 서구청장 후보가 되었다. 능력과 리더십을 당당히 인정받은 것이다.

▲주요공약
-참여와 소통의 생활행정으로 참다운 자치행정 실현
-미래희망 교육복지 표준모델 완성
-친환경 녹색혁신 모범도시 건설
-지역균형발전, 안전하고 품격있는 명품도시 건설

“정책 결정에 주민 참여”



▲주요경력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
-전대병원 상임감사
▲재산= 3억4729만원
▲납세= 1423만원
▲병역= 면제(수형)
▲전과= 없음

▲서구의 당면 현안 문제와 향후 서구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3가지만 꼽는다면.

-당면 현안은 공직사회 비리근절과 일자리 창출, 주민과 함께하는 구성 운영이다. 인사비리, 사업비리 제도적으로 근절하고 공공 복지를 우선하고 주민 자치교육을 강화하겠다. 또 공공서비스 분야의 민간위탁을 지양하고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해야 하며 지역현안 정책 결정에 주민의 참여를 제도화하겠다.

▲본인의 강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장점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용기와 다양한 경험, 높은 친화력이다. 단점은 원칙을 강조하다 보니 다소 강한 이미지로 보이는 게 아쉽다.

▲후보가 제시하는 서구의 비전은 무엇인가? 10년 후의 서구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특정 정당 독점으로 만들어진 부정과 부패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 그래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구정을 실현하고 야 4당과 시민 사회 정책연합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구정을 이끌어가겠다.

▲무소속 후보들이 비민주 단일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무소속 후보들과의 비민주 단일화도 가능한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과 1대1 구도는 유권자들에게 선거 쟁점을 명료하게 보여 주고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 문제는 야 4당·시민사회 단일후보의 입장에서 혼자 판단하고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야 4당의 단일화는 단순히 당선을 목표로 한 후보단일화가 아니라 공동 정책과 향후 공동 구정운영, 대선까지 연대를 전망하면서 이루어졌다. 곧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는 야 4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있는 공동선대위에서 판단하고, 그 결정에 따르겠다.

▲주요공약
-야 4당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협의체 구성
-인사비리, 사업비리 제도적 근절
-서창·유덕동 일대 친환경 농산물로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
-구도심 재개발·재건축 위한 공공관리제 시행

“서구민의 정체성 확립”



▲주요경력
-광주시의원
-1~3대 서구의회 의원
▲재산= 1억9915만원
▲납세= 1825만원
▲병역= 해당 없음
▲전과= 없음

▲서구의 당면 현안 문제와 향후 서구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3가지만 꼽는다면?

-벽진동 공군 탄약고 이전과 중앙공원 개발문제, 신도심과 구도심 간의 불균형 해소와 향후 서구발전을 좌우한다고 생각한다.

▲강점과 단점은.
-서구에서만 지방의원 4선을 지낸 경험과 사회복지와 지방행정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가장 큰 강점이다.

▲후보가 제시하는 서구의 비전은 무엇인가? 10년 후의 서구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서구를 호남지방 수도 자치구로 만들어 진정한 광주의 중심 서구로 만드는 것이다. 민선 이후 서구청의 수장은 줄곧 관료 출신들이 독점해 오면서 괄목할만한 도시확장은 있었지만, 서구민의 정체성을 확립하지는 못했다.

구도심과 신도심, 농촌지역이 혼재돼 경제적 불평등이 심한 서구의 현실에 맞는 희망찬 서구, 교육 서구, 내실 있는 서구 등을 3대 비전으로 제시하고 싶다. 향후 10년 서구는 미래지향적 행정·투명한 행정·쾌적한 행정·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을 펼치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구민참여 행정시스템 도입, 맞춤형 복지, 친환경 웰빙 문화 및 생태환경 조성 등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무소속 후보 단일과 및 비민주 단일화 후보가 가능한가. 본인의 견해는.

-무소속 후보 단일화가 이번 선거의 관건이다. 하지만, 무조건 적이고 무원칙한 단일화는 큰 의미를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무소속 단일화에 대해 김종식 후보와 끝까지 성의 있는 협의를 통해 지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생각이다.

▲주요공약
-스피드 행정실천과 구정 평가단 운영 통한 주민 주권행정
-1동 1개의 작은 도서관 건립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서구 건설
-튼튼한 안전복지망 구축

“서창동 그린벨트 해제”



▲주요경력
-광주 서구청장(민선3기)
-호남대 겸임교수
▲재산= 34억7097만원
▲납세= 1923만원
▲병역= 육군(일병 제대)
▲전과= 없음

▲서구의 당면 현안 문제와 향후 서구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3가지?

-서구발전을 위해 시급한 과제는 많지만 먼저 신·구 도심 간 지역 격차 해소가 우선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마복동 탄약고 이설 및 서창동 일원 그린벨트 해제를 꼽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동시장 등 재래시장 활성화다.

▲본인의 강점과 단점은?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중앙부처에 인맥이 튼튼하다는 게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강점이다. 단점으로는 무소속으로 정당 조직이란 배경이 없다는 것이다.

▲후보가 제시하는 서구의 비전은 무엇인가? 10년 후의 서구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서구는 다른 구에 비해 면적이 좁고 그린벨트도 전체 면적 중 23%나 된다. 이 때문에 서구는 광주의 중심축이면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육환경마저 열악하다. 따라서 마복동 탄약고 이설 및 서창동 일원 그린벨트 해제를 조속히 추진해 이 지역을 교육·문화 중심지역으로 육성해야 한다. 서구는 또 상무 신도심이나 금호·중앙동 등 신도심 권은 그대로 개발이 돼 있으나 양동·농성동·광천동·상무2동 등은 옛날 모습 그대로다. 앞으로 이 두 지역간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구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펼쳐나가야 한다. 여기에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만 해결되면 서구는 광주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다.

▲무소속 후보 단일화 및 비민주 후보 단일화가 가능한가? 본인의 견해는?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실제로도 양쪽 진영에 단일화를 추진 하자고 제의를 내놓은 상태다.

▲주요공약
-노인 어르신과 서민생활 안정에 행정의 최우선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역균형개발사업을 적극 추진
-마복동 탄약고 조기이설 및 서창동 일원 그린벨트 해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적극 해결

“투표율을 높여라”

선관위, 30% 목표... 시민참여 안간힘

10·27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가 1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 분위기가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가 비상이 걸렸다.

재·보궐선거 특성상 투표율이 20%대라는 점에서 선관위는 투표율 제고율을 위한 맞춤형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18일 광주시 선관위와 서구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서구청장 재선거의 목표 투표율을 30%대로 설정하고 각종 홍보활동을 전방

위로 펼치고 있다. 이번 재선거는 임기만료 선거에 비해 유권자의 관심이 저조하고 휴무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최근 50여 명의 '투표참여 방문 홍보단'을 구성해 발로 뛰며 유권자를 직접 만나는 '대면 투표' 참여활동을 벌이며 자발적 투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재·보궐선거의 부재자투표는 임기만료 선거와 달리 사는 곳(자택·요양소 등 머무는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

들의 통행이 잦은 관내 대형할인점 등에 부재자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현역 군인에게는 부재자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맞춤형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이밖에 '공명어음약회'와 자전거 동호회를 이용한 자전거 홍보, 차량 등에 투표참여 깃발을 꽂는 홍보 방법 등 다양한 이벤트성 홍보활동을 펼쳐 이번 재선거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마이녹실 임상결과

참여자의 92.9%가 효과 확인

투약군	효과 확인률
매우호전	2.94%
호전	27.65%
약간호전	62.35%
기타(호전없음, 악화)	7.06%

전국 14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피부과에서 남성형 탈모증 환자 170명을 대상으로 마이녹실 5% 24주간 임상시험 결과, 158명 중 92.9%가 호전되어 그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매우호전 5명(2.94%), 호전 47명(27.65%), 약간호전 106명(62.35%)

남성형 탈모증 환자에 대한 5% Minoxidil 외용액의 공개 다기관 임상연구(제4상 임상시험, 대한모발학회 공동연구) - 대한 피부과학회지 2009년 3월호 발표

■ 임상연구 참여기관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관동대 명지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원주과대학 원주기독병원,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이상 가다나 순) 14개 대학병원 피부과 공동참여

1일 2회 4개월 이상 꾸준히 바르십시오

제품 문의 | 080-024-5525 / 02-2600-3884

검색어 | 검색창에 마이녹실을 치십시오 | 검색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편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꼭 읽고, 의사와 상담하십시오.]